

해남군, 7월 한달간 ‘지역상품권’ 할인 판매

카드·모바일 10% 선할인 630억원 추가 발행 예정

전라남도 해남군이 7월 한 달간 지역상품권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 차등 할인 판매를 시행한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1인당 구매한다 70만원까지 지역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지류상품권은 20만원까지,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1인 70만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1인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류상품권 20만원 구입 후,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50만원 추가 구매도 가능하다.

차등적용은행정안전부의카드·모바일 활성화 정책과 지류 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지류 상품권의 비중을 줄이고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카드·모바일 상품권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계속된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면 10% 선할인, 5% 후캐시백을 적립 받을 수 있어 15% 할인을 받는 셈이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설치와 거래은행 계좌등록, 카드발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없이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 현장에서 QR 결제를 하면 된다.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의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변경으로 카드·모바일 상품권 충전금 보유 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해남군도 보유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충전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로 지난 2019년 4월 발행이후 6년만에 누적판매 70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올 상반기 914억원을 판매하면서 연내 80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하반기 상품권 10% 할인판매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경제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630억원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잡아주고 있는 베타목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고, 군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이용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에 지류 상품권만 이용하셨던 군민들도 카드·모바일 상품권의 적극적인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목포시, 23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부자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자 마련됐으며 목포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그 외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참여방법은 이메일(jisu8597@korea.kr), 등기우편, 또는 목포시청 고향사랑팀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와 세부 내용은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8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 상당의 목포사랑상품권이 수여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에 애정을 가지고 기부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해남군, 배추 작목 전환 사업 추진 ha당 450만원 보조금 지원

전라남도 해남군은 가을·겨울배추 수급조절을 위해 휴경하거나 타 작목으로 전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추 작목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2023~2024년) 배추를 재배했던 농지이며 휴경 또는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4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체 작목은 유채, 귀리, 메밀 등으로 보리와 밀은 지역농협, 법인 등 계약재배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337ha에서 배추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했다.

배추 재배 농가의 높은 호응으로 선제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에는 산지폐기 없이 배추가격의 하락을 막는 효과를 거뒀다.

해남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배추 대체 타 작목으로 전환해 배추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고 수급조절에 기여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영암군, 온열질환 예방 당부 외출 시 양산 지참 등

전라남도 영암군이 본격적 폭염에 대응해 오는 9월30일까지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돌입하며 군민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고온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고령자, 야외근로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암군은 전라남도, 질병관리청과 함께 의료기관, 응급실 등의 온열질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동시에 관련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박수희 영암군보건소장은 “폭염 특보가 빈번해지는 시기인 만큼, 온열질환 감시체제로 영암군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민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고, 주변의 어르신과 취약계층도 함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무안군 윤남면이 지난 1일부터 격월제 한면주차를 시행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윤남면, 격월제 한면주차 시행

질서 확립·안전 확보

전라남도 무안군 윤남면은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윤남면 소재지 도로에 ‘격월제 한면주차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격월제 한면주차제’는 홀수월에는 도로의 한쪽 면(면사무소 측)에만 주차하고 짝수월에는 반대편 면에 주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도로 중앙부 통행 공간을 확보해 대형 농기계와 농산물 운송차량, 일반 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돕고,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남면은 주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안내 현수막, 리플릿 배포,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초기 시행 기간은 계도 위주로 운영되

며 8월부터는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윤남면은 주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안내 현수막, 리플릿 배포,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초기 시행 기간은 계도 위주로 운영되며 8월부터는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지열 윤남면장은 “그동안 양면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응급 상황 시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격월제 한면주차 시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강진군, 하맥축제 음식부스 운영자 모집

전라남도 강진군은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강진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3회 강진하맥축제’를 앞두고 축제의 풍미를 더할 음식부스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하멜촌 맥주를 중심으로 이와 어우러진 다채로운 먹거리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솜씨 좋은 음식부스 운영자를 7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공개 모집하는 판매시설은 음식부스 13개로 모집 분야는 △치킨류(순살) (4개소) △튀김류(1개소) △꼬치류(1개소) △마른안주(2개소) △과일류(1개소) △볶음류(1개소) △무침류(1개소) △분식류(1개소) △전류(1개소)이다.

참여 자격은 저렴하면서도 20~40대의 젊은 층을 겨냥한 트렌디하고 신선한 메뉴를 제공하고자 하는 강진군 내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소 또는 축제 10일 전까지 영업 신고가 가능한 자로 1순위는 강진군민, 2순위는 관외(전남, 광주광역시 등) 거주자이다.

참여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식품위생팀, 061-430-3193)로 제출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하맥축제는 단순한 맥주 축제를 넘어,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개성 넘치는 메뉴로 축제의 매력을 더해줄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섬 홍도 원추리 축제 신안군, 11~20일 개최

전라남도 신안군은 섬 홍도 원추리정원에서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2025 섬 홍도 원추리축제’를 개최하며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홍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 원추리 군락지로 매년 7월이면 바다와 맞닿은 원추리정원에 수십만 송이의 섯노란 원추리가 만개하여 장관을 이룬다.

천연의 신비를 간직한 섬 ‘홍도’는 천연기념물 제170호(1965년 지정) 지정되어 우리나라 천연보호구역 중 면적으로 최대이며 서해 한가운데 떠 있는 자연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2025 섬 홍도 원추리축제’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태축제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여름 바람과 간간이 내리는 여름비가 어우러져 원추리꽃의 생기를 더하며 섬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천혜의 홍도 10경과 섯노란 원추리꽃 향연을 보면 뜨거운 여름날 오아시스처럼 청량한 시간을 선사 받아 가족과 연인들이 행복을 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